

# Photonics Interview

한국광산업진흥회 제4대 허영호 회장 인터뷰

한국광산업진흥회 허영호 회장  
[LG이노텍 · LG마이크론 대표이사]



한국광산업진흥회 제4대 회장으로 LG이노텍 허영호 대표이사가 지난 4월3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신임 허회장은 광산업육성지원기관장과 중소기업지원기관장, 광산업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임기 3년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02년부터 진흥회 부회장을 맡아왔으며, 2004년 출범한 한국광기술연구조합 초대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다년간 진흥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신임 허영호 회장으로부터 취임 소감 및 포부와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취임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

**A** 우선 지난 7년 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우리 진흥회의 제2대 그리고 제3대 회장직을 수행해 오신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회사경영과 우리 진흥회 운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신 이회장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에게 한국광산업진흥회 제4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추대해주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뛰면서도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신 박광태 시장님의 불굴의 의지와 같이 저 역시 회사 경





영인의 한사람으로서 회사 경영과 더불어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Q** 신임 진흥회 회장님으로서의 포부를 밝혀주시시오.

**A** 먼저 진흥회의 설립목적이 국내 광산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착수하는 광산업육성 3단계사업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진흥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국내외적인 위상을 한차원 끌어 올리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광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의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국내 광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대정부정책건의 자료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또한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은 물론 10개국 광산업협회 회장단과 읊저버로 참가하는 5개국 광산업 협회 회장단 등 15개국 광산업협회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진흥회의 위상을 재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Q** 최근의 경제적 상황 및 광산업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환율불안, 국제유가의 상승, 각종 원자재값 상승 및 국제적인 금융불안 등 제반 경제여건과 기업경영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사의 경우 작년에도 당초 계획한 매출목표를 초과달성하고 금년도의 경우 당초 매출목표보다 상향 조정하는 회원사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과 광산업육성·지원기관 단체 임직원을 비롯한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하면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광산업 육성이 시작된 이후 광주지역 광산업체 수는 6배 이상 증가했고 고용 인원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여개 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백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광다이오드(LED) 고효율화에 따른 기존 조명 교체시장의 확대와 대내광가입자망(FTTH) 관련 부품업체의 수출증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산업은 정부의 녹색뉴딜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확대보급 및 공공기관 LED조명기기 교체사업, LED조명시범보급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Q**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으로서 한국의 광산업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A** 광주광역시에서 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이전에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학기기분야와 경인지역의 광정밀기기, 광정보분야가 부분적으로 산업화가 되었지만 지난 2000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광통신과 LED 분야인 광원산업을 집중적 육성하면서 우리 한국도 명실상부한 광산업육성 선도 국가의 반열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계획에 의거 광산업분야 육성의 밑그림이 될 기술로드맵을 정립하고 국제적인 시장경쟁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광산업의 현실을 집어보면 기술적 선진국인 미국, 일본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등 틈바구니에서 양면의 경쟁에 놓여 있는게 사실입니다. 광산업분야 중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는 광정보에 한정되어 있으며 광통신, 광원 분야는 시장규모에 비해 그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시스템중심이 아닌 부품중심의 광통신산업 구조 그리고 원천기술 확보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LED광원 산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광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진흥회차원의 중점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R&D 투자확대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시스템 생산체계 지원과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 특허공략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IT기술 융합 광제품 개발은 세계시장의 새로운 Needs를 선도 할 수 있





는 분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바 우선순위를 정해 IT, 의료, 에너지, 환경, 국방 분야와의 광산업 융 복합 산업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광산업분야 산업 구조의 전략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통신을 비롯한 LED광원분야 업체의 대다수가 중소·벤처기업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취약한 상황임은 광산업체를 경영하는 모두의 과제입니다. 더불어 동종 아이템 생산업체간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또한 국제 경쟁력상실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인 M&A 추진은 현실적인 필요성과 함께 중점 추진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과 의식전환 컨설팅 지원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하는 대규모 펀드조성 및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Q** LED분야 세계시장이 확장되고 있는데 세계시장과 경쟁해 나가기 위한 차별화된 국내 LED기술개발과 시장접근 전략은?

**A**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관련자료에 의하면, LED분야의 세계시장규모는 '08년 214억불, '15년 1,000억불에 육박하며, 국내시장의 경우 '08년 2조 4,000억원, '15년에는 15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등 선진외국에서도 탄소배출권등과 연계한 환경정책으로 기존의 백열전등을 LED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한국도 이에 더 나아가 'LED 광원 핵심기술고도화', 'LED 보급사업의 단계적 확대', '공공 기관 LED조명기기 우선 적용을 위한 대규모 시범보급사업' 등과 2015년도까지 국내 일반 조명기기의 30%를 LED로 대체하는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는 물론 녹색 뉴딜사업을 통해 LED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LED분야 기술개발과 성능개선 및 인증체계 확립 등을 위한 KS규격제정, 시험·인증기준의 제정,

고효율 기자재 시험·인증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LED표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ED조명의 보급확산을 위해 내수시장을 확대하면서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세계시장과의 차별화된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진흥회 회원사의 공동이익과 권익보호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A** 진흥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광산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산업육성지원기관협의회 운영 등 광산업육성지원과 관련한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를 우리 진흥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각 회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낮은 자세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회원사간 친목도모는 물론 공동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내년 3월이면 진흥회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진흥회 발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요.

**A** 그렇습니다. 내년 3월이면 우리 진흥회가 창립한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에 진흥회는 지내온 10년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비전 2020'을 선포하기 위한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진흥회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러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0주년에 맞춰 대외적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A** 우리 진흥회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광산업육성지원기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광산업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와 관심,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만 더욱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이 우리 진흥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깊은 애정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허영호 회장  
[LG이노텍·LG마이크론 대표이사]

신임 허영호 회장은 :

52년생으로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다. 77년에 당시 금성사(현 LG전자)에 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94년 임원승진에 이어 2002년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으로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30여년을 LG그룹에 몸담아왔으며 글로벌 CEO상, 은탑 및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온 전문경영인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00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경영난에 빠진 LG마이크론의 경영을 맡아 1년 만에 흑자로 바꿔 놓고 코스닥에 상장 시킨 경험이 있다. 또 수익성 악화와 성장정체에 있던 LG이노텍을 맡아 7년 만에 매출 규모를 5배나 키워놓고 기업공개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부터 LG그룹내 양대 전자부품 업체인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